

# 濟州 郭支貝塚 7地區 層位와 土器에 관한 考察

康呂和\* · 金慶柱\*\*

## 목 차

I. 머리말	IV. 土器 編年과 變化
II. 層位	V. 맺음말
III. 土器 分類와 屬性	

## I. 머리말

耽羅時代의 濟州島遺蹟은 農耕에 유리한 토양조건, 飲用水등의 식수조건, 특히 해안과 하천을 끼고 있는 지형조건을 지닌 海岸地域 평탄대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대표적인 유적이 郭支里遺蹟이다. 이 유적은 패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일대 패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범위가 동서 1.5km, 남북 70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 簡略發掘調査가 이루어 졌다(도면1). 각 地區패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濟州島의 耽羅前期와 後期の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sup>1)</sup>

곽지패총2지구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퇴화형 구멍무늬토기에서 곽지1식토기로 이어지는 층위상황을 확인하였다. 5지구에서는 탐라시대전기인 2-4세기에 해당하는 완형토기가 대량으로 확인되어 土器組合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지구에서는 통일신라토기와 공반하여 곽지2식토기가 단일층위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郭支패총7지구에서는 耽羅前期에 해당하는 郭支1式土器文化層과

\* 제주대박물관 \*\* 영남대대학원

1) 郭支패총에 대한 그간의 조사 내용을 소개한 보고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같다.

李清圭 · 李白圭, 1985. 『郭支貝塚』(濟州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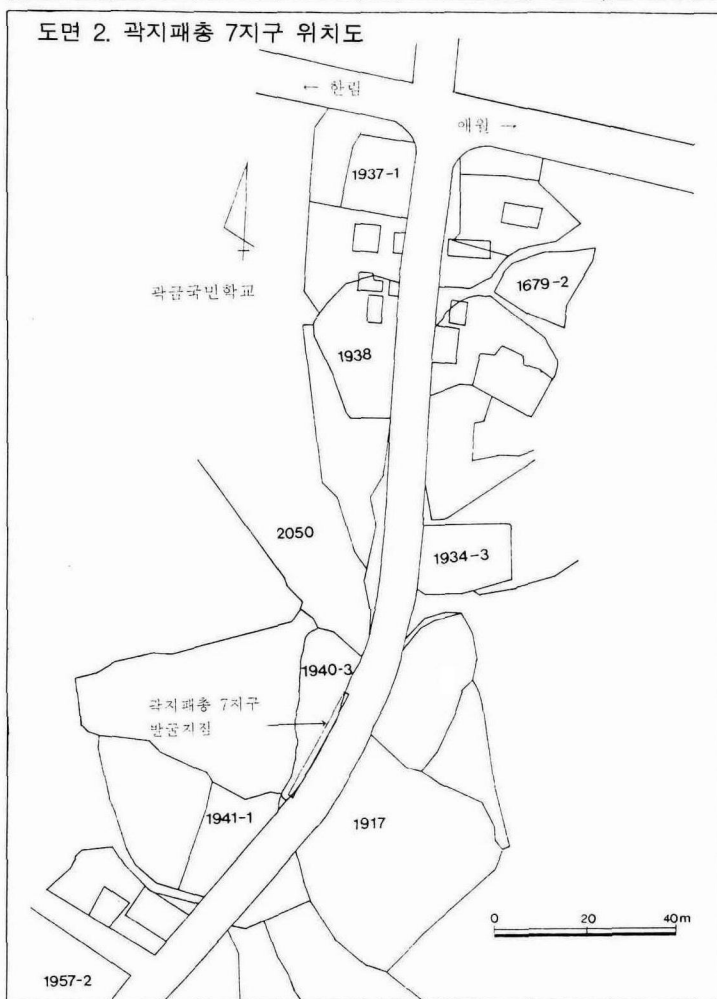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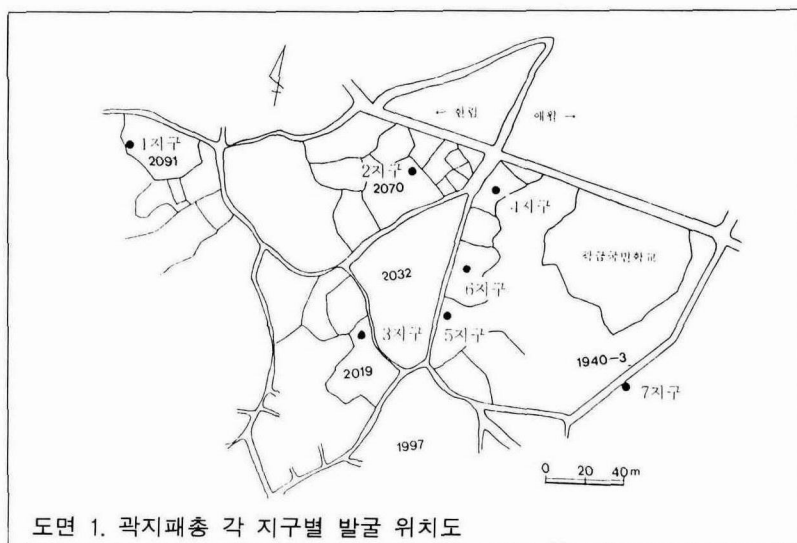
李清圭, 1985. 「濟州島地方의 初期鐵器性格과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韓國考古學報』18.

李清圭, 1986. 『濟州島遺蹟』(濟州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2, 54-71.

李清圭 · 高才元, 1989. 「郭支貝塚 5地區 緊急調査報告」 『韓國上古史學報』2.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의 上古文化』, 59-84.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學研文化社).



耽羅後期에 해당하는 郭支2式土器文化層이 일정한 間層(적석층, 재층)으로 구분되어 耽羅時代 全期間에 유행했던 土器의 變遷過程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層位分析을 통해 郭支1式土器과 郭支2式土器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郭支1式土器에서 郭支2式土器로의 전개 양상을 좀더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土器으로의 移行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단계 토기형식과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 II. 層 位

郭支貝塚7地區에 대한 조사는 1992년 마을 안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이미 파괴된 유적의 貝塚斷面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현 광금초등학교 동편으로 이어지는 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방향과 나란하게 貝塚斷面을 조사하였다(도면2). 조사된 패총단면은 길이 35m, 깊이 1.4m였다. 패총의 斷面層位는 높낮이가 있는 밭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 단면이 다른 層位樣相을 보여주었다.

### 1. 남쪽 단면 층위(도면3)

맨 상층인 표토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서 그 깊이는 10~17cm에 이르며 평균 두께는 12cm정도이다. 이 層位는 최근 경작에 의해 심하게 교란된 耕作層이다. 그 아래층인 제1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이고 지표하 8~24cm까지 내려가 있다. 제2층은 명갈색층이며 지표하 28~41cm까지로 상층에 비해 土器 및 패각량이 많은 혼토판각층을 띠고 있다. 제3층은 명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자갈한 자갈돌과 土器, 패각 등이 혼합된 혼토판각층이다. 또한 상층인 2층보다 현저하게 유물량이 많아지며 청동제 사발편이 출토되는 등 남쪽 단면에서의 주요 유물층으로 판단된다. 제4층은 지표 아래 54~92cm까지 이르고 그 두께가 30cm정도 되는 갈색적석층(석렬층)이다. 이 층은 크고 작은 괴석들이 포함된 층으로 남쪽보다 북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큰 괴석들이 層位에 박혀 있으며, 이 잡석들은 남에서 북으로 거의 수평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잡석과 잡석 사이에 한 개체분으로 판단되는 土器片이 밀집되어 군데군데서 확인된다. 제5층은 갈색혼토판각층으로, 지표 아래 89~118cm, 두께 26~36cm에 이른다. 이 층은 자갈한 석립과 土器, 貝殼이 매우 밀집되어 나타나는 층이고, 土器편은 북쪽편에 비해 남쪽편에서 많이 출토된다. 제6층은 암갈색층으로, 지표 아래 123~131cm까지로, 두께 10cm미만인 띠층의 성격을 띤다. 또한 이 층은 재층과 상층의 貝殼層 사이의 푸석푸석한 층으로 북쪽 단면에서 남쪽 단면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패각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土器片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제7층은 지표 아래

123~137cm까지 이어지는 두께 8cm미만의 검은 재층이다. 이 층은 북쪽 단면에서 연결되어 내려오는 푸석푸석한 목탄층으로, 패각의 포함량도 적고 郭支1式土器만이 소량 출토된다. 제8층은 갈색점토층으로 지표아래 146~156cm까지로, 부드러운 점토에 자갈한 돌이 포함된 층이다. 패각은 거의 보이지 않고 郭支1式土器片이 소량 확인된다. 이 層位 밑으로 황갈색 생토암반층이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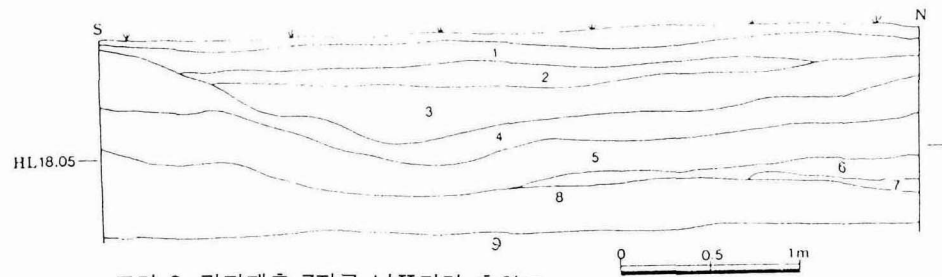
## 2. 북쪽 단면 층위(도면4)

맨 상층인 표토층은 흑갈색 耕作腐植土層(지표아래 10~12cm, 두께 10cm), 제1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지표아래 13~22cm, 두께 16cm), 제2층은 갈색점토층(지표아래 30~35cm, 소량의 패각층)으로 남쪽 斷面層位の 5층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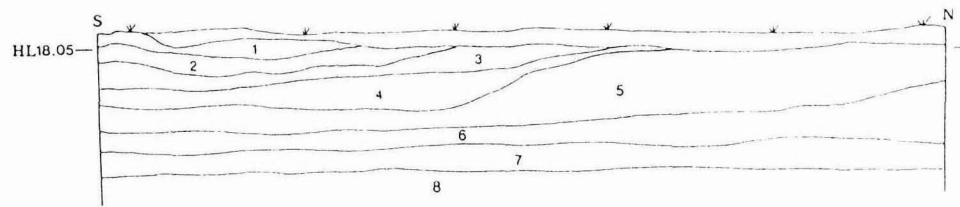
제3층은 암갈색점토층으로 지표 아래 43cm까지로 북쪽에는 貝殼이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남쪽으로는 소량의 패각과 재층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어 바로 하층인 재층과 자연적으로 혼입된 층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4층은 흑색재층으로 지표아래 58cm까지이며 매우 무른 재층으로 하층의 패각 형성 이전의 층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심하게 내려가 전체적으로 'U'자형을 취하고 있다. 소량의 패각이 보이고 郭支1式土器片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층인 제5층은 흑갈색 혼토패각층으로 지표하 79cm까지이다. 이 층은 패각량이 많고 패각층이 남쪽으로 심하게 내려가고 있다. 이는 수평으로 형성되었던 패각층이 상층의 재층 형성 과정에서 패각층 남쪽이 깎여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層位에 비해 郭支1式土器片이 다량 출토되고 있어, 북쪽 단면에서의 주요 유물층으로 판단된다. 제6층은 갈색점토층으로 남쪽 단면의 제8層位와 연결되며 패각 형성 이전의 層位이다. 제7층은 지표아래 92cm까지로, 갈색점토층이며 작은 사갈이 포함되고 패각이 전혀 없는 층이다. 소량의 郭支1式土器片이 확인된다. 이 層位 밑으로 생토층이 이어진다.

## 3. 전체 단면 층위(도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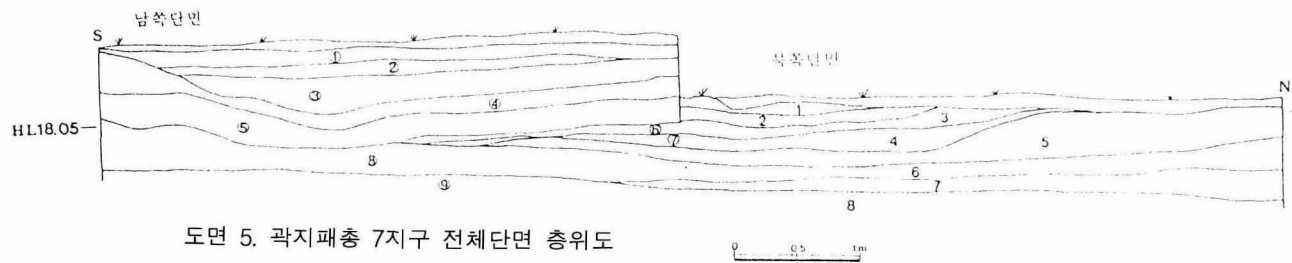
남쪽 層位斷面과 북쪽 層位斷面을 비교해 볼 때, 남쪽 단면은 3, 4, 5층에 걸쳐 북쪽보다 두터운 70cm 가량의 혼토패각포함층이 형성되어 있으나, 북쪽 단면의 5층에 형성된 패각층에 비해서는 밀집도가 적다. 남쪽 層位에서는 재층 위로 모든 층에 걸쳐서 패각이 보이나, 북쪽 層位の 경우는 같은 層位라 할지라도 한 곳에 패각이 밀집되어 있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패각층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남쪽은 層位를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패각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쪽의 경우 郭支1式土器段階에 집중적으로 패층이 형성되었으나, 郭支2式土器단계에 해당하는 패각층은 형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남쪽의 경



도면 3. 각지패총 7지구 남쪽단면 층위도



도면 4. 각지패총 7지구 북쪽단면 층위도



도면 5. 각지패총 7지구 전체단면 층위도

우에는 郭支1式土器단계 말기에 와서 郭支2式土器단계의 패각층으로 연속해서 형성되는 土層樣相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벽 層位樣相을 종합하여 볼 때, 층위적으로 郭支1式土器에서 郭支2式土器으로의 변천 양상을 읽어 내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북쪽 단면에서 남쪽 단면으로 내려오며 형성된 재층은 그전에 패각층이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파고 들어가 형성된 유구층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층 위로 형성된 3층(貝殼層)에서 郭支1式土器 출토량이 극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層位樣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북쪽 断面層位에서 흑색재층(4층)을 경계로 아래층에서는 郭支1式土器편이 다량 출토되고, 윗층으로는 郭支1式土器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層位양상이 주목된다.
- 2) 남쪽 断面層位에서 주목되는 層位는 석렬로 이어지는 적석포함층(4층)이다. 적석포함층을 경계로 상층에서는 郭支2式土器편만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 3) 북쪽토층의 흑색재층 상면에 형성된 2·3층은 남쪽토층의 적석석렬층 밑으로 연결되고 있다.
- 4) 북쪽토층의 재층은 남쪽토층의 6층 아래층으로 서로의 層位가 연결되고 있다.
- 5) 이러한 토층양상은 (1)재층 아래층, (2)재층과 적석층의 중간층, (3)적석층 윗층으로, 크게 3기의 문화층으로 나눌 수 있다.

### III. 土器 分類와 屬性

土層 分析을 통해 이 곳의 全體 層位는 총 11~12개의 自然層位으로 이루어졌으며, 간층인 재층과 적석층으로 구분할 때, (1)재층 아래층, (2)재층과 적석층의 중간층, (3)적석층 윗층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貝塚堆積과 관련된 文化層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3기의 문화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모든 유물층에서 出土된 土器을 모아서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출토 土器은 4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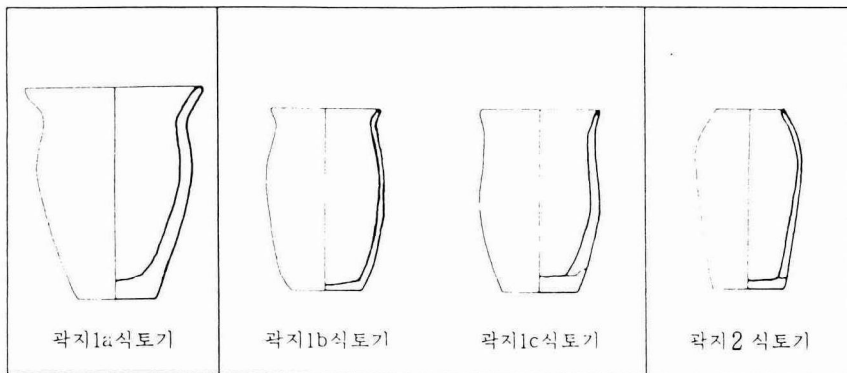
- 1) 1a식은 태토가 매우 거칠고 구연부가 밖으로 크게 벌어지고 입지름이 바닥 지름보다 훨씬 넓은 광구외반구연토기로, 이미 이 土器은 「郭支1式土器」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耽羅前期의 대표적인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2) 이와 같은 분류는 단면상에 層位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소량의 土器만을 가지고 분류하였기 때문에 분류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間層(재층과 적석층)을 중심으로 上層과 下層의 유물 출토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이 지점에 대한 擴大發掘調査를 실시하여 더 많은 유물을 수습하고,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土器의 통계분석과 공반 유물상의 분석을 통해야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자료는 層位別 출토 유물에 따른 편의적이고 단편적인 1차자료의 해석에 불과하다.

- 2) 1b식은 태토의 질이 1a식보다 고르고 구연부의 외반 각도가 적으며 구연 지름과 동체 지름이 거의 같은 1:1 비율로 제작된 土器形式이다. 1a식을 보면 동체에서 저부로 내려갈때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으나 1b식은 그 외반 각도가 덜하다.
- 3) 1c식은 정면처리수법과 태토가 거친 것은 郭支1a, 1b식과 유사하다. 구연과 동체의 지름비율이 1:1에 가깝고, 동체가 밋밋하게 내려가는 것은 앞서 1b식과 비슷하다. 다만 동체부와 저부를 따로 만들었고 구연부의 기울기에 있어서는 1b식과는 달리 거의 밋밋하게 올라가는 직립에 가까운 기형을 하고 있다. 저부 지름도 1a, 1b식에 비해 넓어진 형태이다.
- 4) 2식은 구순부에서 살짝 외반하고 입지름과 바닥 지름이 거의 같으며 동체부에 가서 다소 배가 불러 있어 土器 최대직경이 동체 상단부에 있는 深鉢形 그릇형태를 갖고 있다. 제작수법과 정면처리수법에 있어서 郭支1a式土器와는 전혀 다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토기는 「郭支2式土器」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耽羅後期를 대표하는 土器로 정리하고 있다.

각 형식의 土器를 圖式化하면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各 土器 形式



遺物層과 관련하여 볼 때, 土器包含層은 지표층을 포함하여 9개의 유물층이 나타난다. 남쪽 단면을 근간으로 層位別 各 形式土器의 出土狀況은 다음 <表 2>와 같다.

3)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學研文化社), 343-348.

그는 제주도 耽羅時代土器를 郭支1式土器과 郭支2式土器로 대별하고, 郭支1式土器는 耽羅前期를 (A.D.0~500)대표하며, 郭支2式土器는 耽羅後期(A.D.500~900)를 대표하는 土器으로 설정하였다.

<表 2> 層位別 各 形式土器 出土狀況

期 層	層位區分	郭支1a式	郭支1b式	郭支1c式	郭支2式	비 고
3期層	1層				○	
	2層				○	
	3層				○	청동그릇
2期層	4層		○	*○	○	*완형토기
	5層	○	○	○		회색도기
1期層	6層	○				
	7層	○				
	8層	○				

第1期層에서는 전형적인 郭支1式土器만이 출토된다. 윗층인 第2期層의 5층에서 郭支 1a, 1b, 1c式土器가, 4층에서는 郭支1b, 1c式, 2式土器가 공반 출토되고 있다. 第3期層에서는 전형적인 郭支2式土器만이 출토되는 層位樣相을 보인다.

第2期層의 5층에서 출토되는 1b, 1c式土器는 전대의 郭支1a式의 土器成形手法를 사용하고 있으나, 第3期層 출토토기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토기성형기법인 회전판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정면처리기법에서도 第2期層의 5層 出土 토기는 물손질과 빗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第3期層 토기는 대부분 깎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第2期層의 4층 밑으로 출토되는 토기는 구순부를 대충 마무리하였고, 대칼과 같은 도구로 깎아 낸 것은 몇 점에 불과하나, 第3期層 토기는 대부분 구순부 깎기 수법이 확인된다.

특히 第2期層의 제4층 밑으로 확인되는 土器는 모두 평저에 두께가 1.0cm가 넘고, 저부의 지름에 비해 동체의 지름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저부편만이 보이고 있고, 제4층 위에서 출토되는 土器는 평저에 태토가 비교적 고르고 두께가 1.0cm미만이며, 동체와 저부의 지름이 거의 비슷해지며 빗밋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저부편이 대부분이다. 전술하였다시피 第2期層의 4층에서는 1a式의 저부편이 대다수이나 2式의 저부편도 몇 점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4층에서 郭支2式土器의 流入可能性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각 期層 出土遺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분류에 따라 1,2,3期層에서 나타나는 郭支1a, 1b, 1c式土器와 郭支2式土器의 形態的 屬性을 살펴보면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各 形式 土器의 屬性

구분 속성	郭支1a式土器 (Ⅵ, Ⅶ層)	郭支1b式土器 (Ⅳ, Ⅴ層)	郭支1c式土器 (Ⅳ, Ⅴ層)	郭支2式土器 (Ⅱ, Ⅲ層)
색    깔	적갈색 (흑색, 암갈색)	적갈색 (흑색, 암갈색)	적갈색 (흑색, 암갈색)	적갈색
태    토	태토가 매우 거칠고 보강제로 사용한 굵은 모래 알갱이가 보임		태토가 약간 거칠게 제작되었음	태토가 매우 고르며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사용됨.
정면처리	물손질, 빗질, 문지르기.		물손질, 빗질수법.	물손질, 깎기수법.
두    께	0.8cm이상	0.6~1.4cm	0.6~1.4cm	0.5~0.7cm
구연각도	밖으로 크게 외반되어 있음.	외반된 각도가 1a식보다 적어짐	외반정도가 적고 직립에 가까움	직립구연에 끝이 약간 외반됨
그    릇    의 비    율	구경이 대체로 최대 동경에 비해 넓음	구경과 최대동경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구경과 최대동경이 비슷하고 때로 최대 동경에 둠	동체상면이 가장 넓고, 구경과 저경이 거의 비슷해짐
구    순    부 처    리	대충 둥글게 마무리 함	대부분 대충 마무리 하고 있으나 구순부를 깎아낸 것도 몇 점 있음		대부분 구순부를 대칼도구로 깎아냄

## Ⅳ. 土器 編年과 變化

### 1. 土器 編年

郭支1a式土器는 濟州島 無文土器 末期段階인 孔列・刻目土器에서 발전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sup>4)</sup> 이는 이 土器의 속성 중 태토 보강제로 혼입되는 재료로서 굵은 현무암 모래 알갱이가 사용되고, 그릇의 두께가 1cm가 넘는 濟州島産 赤褐色硬質土器로 전개되는 樣相이 상모리 A地區 上層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sup>5)</sup> 1a式土器의 시작 연대는 郭支貝塚 2地區에서 金海式土器과 공반하고, 중달리 貝塚에서는 三角粘土帶土器과 공반하는 예<sup>6)</sup>로 보아, 대체로 기원전후한 시기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絶對年代 자료는 없다. 이 土器의 중심 年代는 郭支貝塚 5地區의 발굴에서 70여점의 완형토기와 함께 郡谷里 擦文土器가 출토되어<sup>7)</sup> 2세기경쯤

4)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의 上古文化』 59-84.

5)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墓里遺蹟』(濟州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 6, 187, 圖面 56.

6) 李清圭, 1995. 『앞 책』(註 1-⑥), 159-160.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土器의 下限年代에 대한 자료는 아직 매우 불충분하다.

다소, 이 土器의 下限年代를 풀 수 있는 자료가 郭支貝塚7地區 層位別 유물공반상에서 제시될 수 있다. 북쪽 단면 제4층(재층, 第2期層의 5층보다 아래층)에서 1a식土器과 공반하여 소량의 격자문대호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 打捺文大壺片은 5~6세기대 百濟古墳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sup>8)</sup> 또한 第3期層의 3층에서는 전형적인 郭支2式土器과 공반하여 靑銅鉢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靑銅鉢은 1986년에 조사한 郭支4地區 貝塚에서 印花文土器, 四角扁瓶, 突帶文大壺와 共伴하여 출토되었고, 7세기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慶州 雁鴨池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다.<sup>9)</sup>

이러한 유물공반상을 層位狀況과 대입해 볼 때, 적어도 郭支1a式土器은 5~6세기까지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전형적인 郭支2式土器의 사용 시기는 7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層位的으로는 郭支貝塚7地區 第2期層 5층의 年代와 第3期層 3층의 形成 年代와 맞물린다. 그렇다면 郭支1b, 1c式土器은 6~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2. 土器의 變化

1.1. 第2期層 4층에서 출토된 1b, 1c式土器은 第3期層 3층의 郭支2式 深鉢形 土器에 비해 제작수법이나 정면처리수법의 차이가 있고, 기형상에서도 郭支2式土器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郭支1式土器와의 비교에서도 土器屬性이 차이점이 많아, 郭支1式과 2式土器의 중간 단계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郭支1式土器의 변화형이면서 하위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1.2. 第2期層 4층 출토의 土器이 상층에 비해 제작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第3期層 時期의 土器 製作者들이 하층 土器 製作者들과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존의 土器 製作者들이 갑작스럽게 土器 製作手法의 變化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郭支1b, 1c式土器의 제작기술은 원래의 전통적인 제작기술에서 새로운 土器製作 技術을 받아들여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증거는 土器製作 手法上 원판의 바닥을 따로 만들어 동체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자체적인 발전이라기 보다 외부적인 土器製作 技法의 수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1.3. 第2期層 出土土器 중 郭支1b, 1c式土器과의 관계는 새로운 기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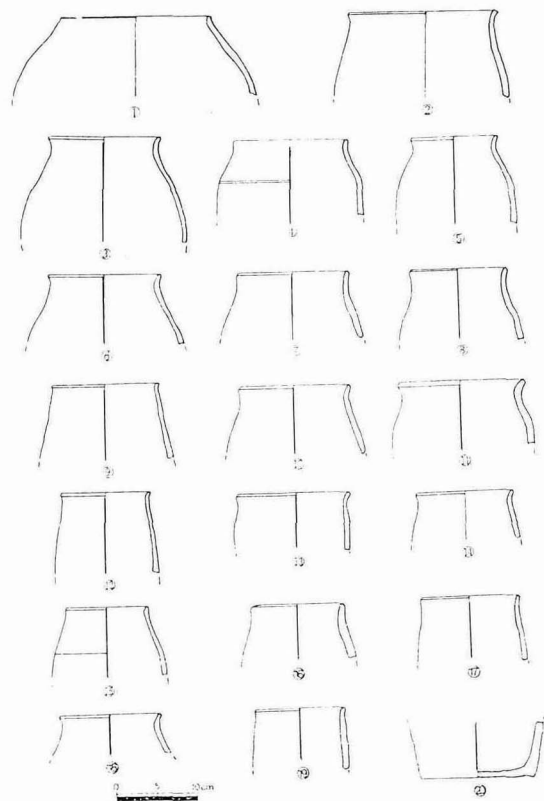
7) 李清圭·高才元, 1989. 「앞 글」(註 1-④).

8) 安承周, 1991. 「百濟土器의 發達과 그 特徵」『百濟의 彫刻과 美術』, 295-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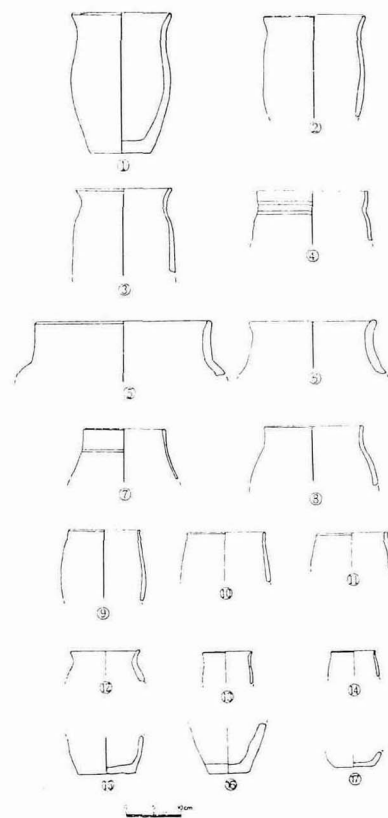
9) 韓炳三, 1978. 「容器類」, 『雁鴨址』(文化財管理局), 247-248.

10) 崔盛洛, 1987. 『海南 郡谷里 貝塚』(목포대박물관),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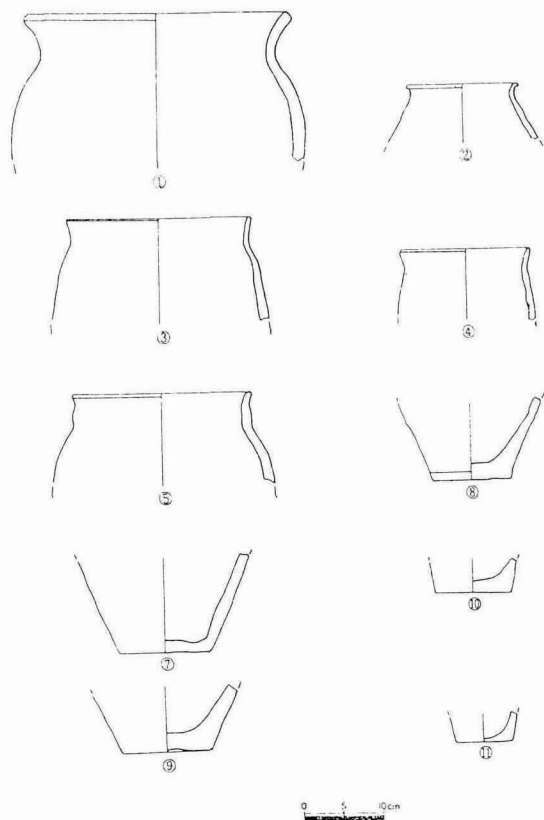
저부의 접합수법은 동체부를 成形한 후, 원판상의 점토를 이용하여 밖으로 붙이는 방법과 안으로 채워넣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기법은 硬質無文土器 중에서 굽이 없는 토기, 硬質捺文土器의 저부에 사용되는 기법이고, 후자의 기법은 打捺文土器에서만 관찰되는 기법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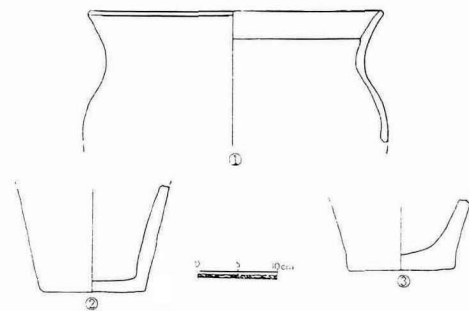
도면 6. 광지패총 7지구 2~3층 출토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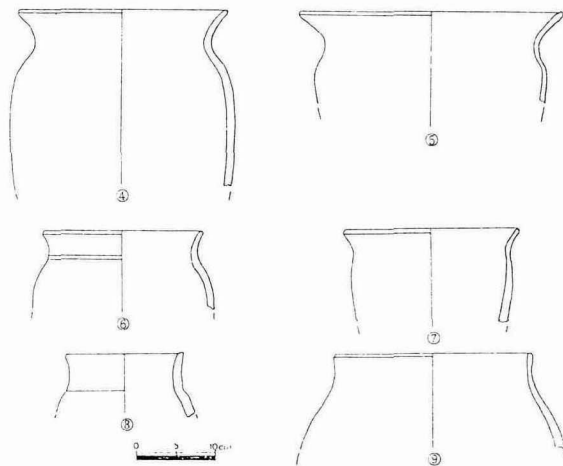
도면 7. 광지패총 7지구 4층 출토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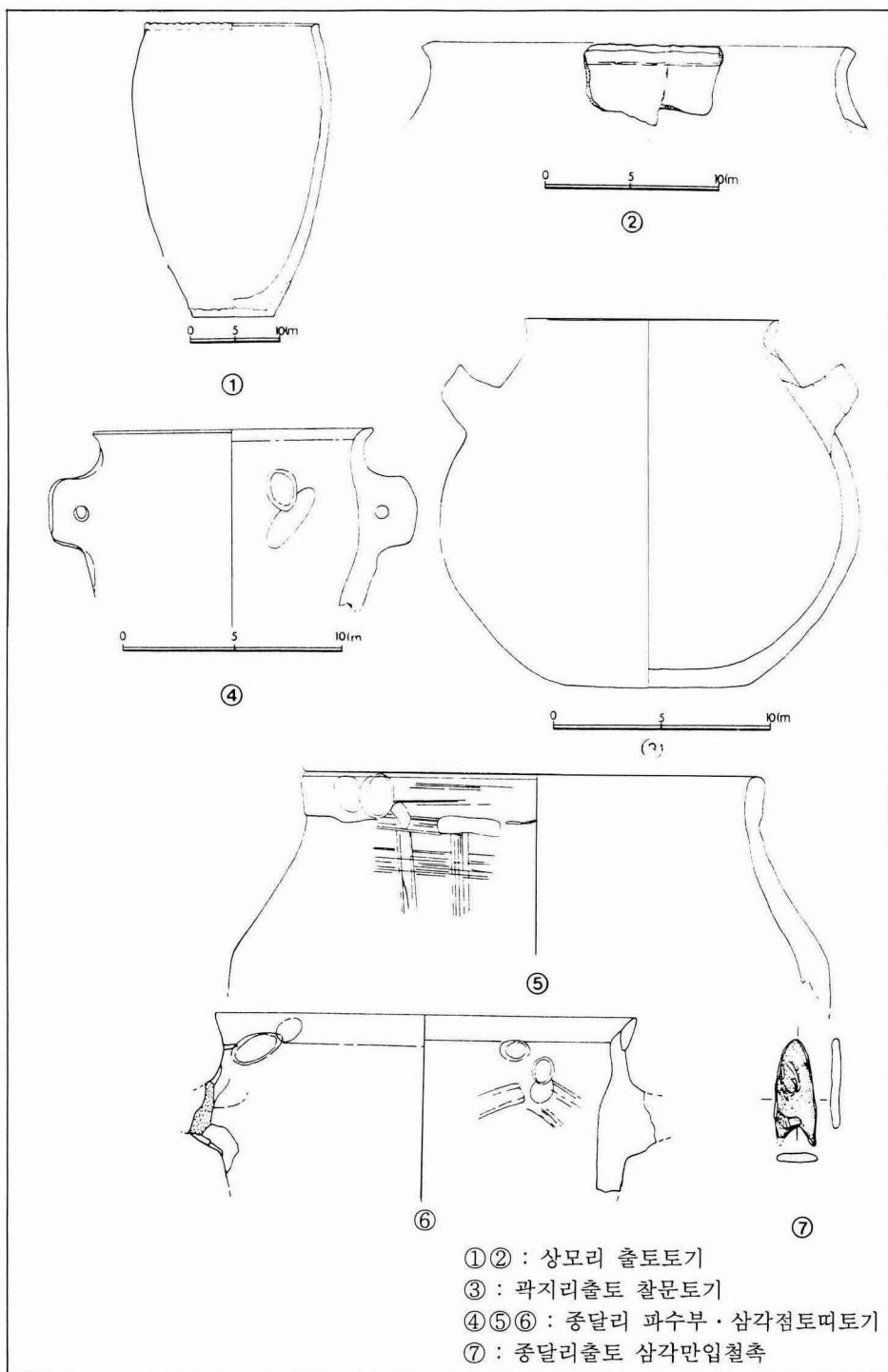
도면 8. 광지패총 7지구 5층 출토토기



도면 9. 광지패총 7지구 6층 출토토기



도면 10. 광지패총 7지구 7층 출토토기



도면 11. 상모리·팍지패총5지구·종달리 출토토기

나타날 수 있는 제작기법상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郭支2式土器은 보다 전문적인 제작자에 의해 균일적인 기형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 V. 맺음말

郭支貝塚7地區의 層位分析을 통해 郭支1式土器과 郭支2式土器이 간층을 경계로 層序에 의해 시기를 달리하며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郭支1b, 1c式土器은 중간층에서 공반 출토되고 있어 두 土器 形式間의 시기적인 차이를 다루기엔 어려움이 많다. 郭支1c式土器에서 주목되는 屬性變化는 외반구연에서 점차 밋밋하게 올라가는 구연부 처리수법, 바닥을 따로 만들어 동체와 접합하는 새로운 제작기법, 그리고 토기 용량의 소형화되는 현상 등이다.

郭支1c式土器는 다음 단계의 郭支2式土器와의 연관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유물 출토 層位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태토성분, 정면처리수법, 그리고 구경과 저경의 비율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郭支2式土器의 완전한 조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本考에서 서술한 이 자료는 郭支貝塚7地區에 국한된 것이다. 앞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濟州島의 여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層位相, 土器變遷相을 보여 줄 수 있는 예가 더 많이 확인된다면 濟州島 耽羅時代의 문화 단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